

“내고장 살리기 문학도 동참해야죠”

전남문협, 보성·장흥·강진군에 문학기행시집 기증

여행하며 느낀 애향 시집에 담아
각 지역에 시집 500권씩 전달
“문학애향, 군민·독자와 공유했으면”

문인들이 전남 지역을 여행하고 해당 지자체에 관련 시집을 전달해 눈길을 끈다. ‘문학으로 애향을 하고자 하는 뜻’을 담았다는 점에서 이번 시집 기증은 매우 의미있는 일로 보인다.

전남문인협회(전남문협·회장 김용국)는 12일 보성군청, 13일 장흥군청을 방문해 각각 문학기행시집 500권을 기증했다. 14일에는 강진군청을 방문해 작품집 500권을 전달했다.

이번 시집 기증에는 한국문협보성지부(회장 임일환) 임원들도 함께했다. 당초 이번 시집 전달은 김용국 회장이 4년 전 회장에 취임하면서 그동안 문학기행을 타시·도로 갔던 것을 전남으로 가져와 제안을 했던 게 시초였다.

김 회장은 “고향을 더 알면 알수록 사랑하게 된다는 ‘문학 애향’ 주장을 회원들이 의미있게 받아들였다”며 “각 군청의 도움을 받아 시집을 발행해 군민과 독자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어서 뜻 깊다”고 말했다.

이번 시집은 ‘2020 보성 그곳에 가면’, ‘2020 문림



전남문협은 최근 보성군, 장흥군, 강진군을 찾아 문학기행 시집 각 500권을 기증했다. 사진은 보성군에 시집을 기증하는 장면. <전남문협 제공>

장흥을 걷다’, ‘2020 내 마음이 닿는 곳 강진’이다. 시집은 각각의 지자체로부터 도움을 받아 출간할 수 있었다.

회원들은 지난해 보성, 장흥, 강진, 영광, 장성 등 전남의 문인들과 작품을 훑어보는 문학기행과 심포지엄을 통해 각 지역은 물론 전남의 문화자원을 새롭게 인식할 수 있는 계기를 갖게 됐다.

이에 대해 문인들은 “문학작품도 가장 향토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라며 “케이 잡처럼 한국의 문학이

세계인을 감동시킬 수 있는 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전남도가 추진하는 사책인 블루 이코노미와도 연계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반응이다.

한편 김용국 전남문협회장은 “지난해 회원들은 향토 사랑의 마음으로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기행을 펼쳤다”며 “이번에 발행된 시집들이 군민과 독자들은 물론 출향 향우들에게도 옛 추억과 아울러 고향에 대한 소식을 전하는 매개체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롯데아웃렛 광주수완점, 장애인 생활관에 간식꾸러미



롯데아웃렛 광주수완점(점장 이충열)은 장애인의 날(20일)을 앞두고 최근 광주시 광산구 7개 장애인 생활관을 찾아 간식꾸러미 700개를 전달했다. <롯데쇼핑 제공>

수자원공사 완도수도지사, 보길도 부항천 정화활동



한국수자원공사 영·섬유역본부 완도수도지사(지사장 한덕춘)과 완도군상하수도사업소, 소바지교육중앙회, 보길면사무소 등 30여 명은 지난 13일 보길도 부항천 1.2km 구간을 청소해 폐기물 3t을 수거했다. <수자원공사 완도수도지사 제공>

광주여대·목포해양대 KWU혁신사업단, 기관과 협약



광주여자대학교(총장 이선재)와 목포해양대학교(총장 박성현)가 공동주관하는 KWU지역 혁신사업단(단장 정성일)이 최근 광주전남지역혁신플랫폼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전남 서부지역의 씨월고고속철리주식회사 등 5개 선사 및 한국해운조합 목포지부 등 중요기관과 산학협력을 체결했다. <광주여대 제공>

“지역사회 봉사하고 지방행정 발전 기여할 것”

임우진 신임 광주시지방행정동우회장

임우진(사진) 전 광주 서구청장이 최근 광주시지방행정동우회(이하 행정동우회) 회장으로 선임됐다.

행정동우회는 최근 2021년도 정기총회를 열고 만장일치로 임우진 신임 회장을 선출했다. 임기는 2년이 며, 연임 가능하다.

동우회는 광주에서 공직자로 일했던 이들로 구성된 단체다. 지난해 이전까지 지방행정동우회는 사단법인 체로 운영돼 각 사·도별, 사·군·구별 친목 모임에 지나지 않았으나, 지난해 3월 ‘지방행정동우회법’이 제정

되면서 법적 근거를 가진 단체로 거듭났다.

“단순히 친목을 도모하는 것을 넘어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지방 행정에 기여하면서 회원복지도 챙길 수 있는 단체가 됐습니다. 공익적 활동을 하는 범위 내에서는 지자체 지원도 받을 수 있게 됐지요.”

임 회장은 “300여명 회원 모두 평생 공직에서 공익을 위해 일했던 이들이다”며 “이들이 퇴임 후에도 동료 선후배들과 함께 사회에 기여하며 보람 있는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 회장은 임기 내 목표로 ‘보람찬 100세 시대’에 초점을 맞췄다. 퇴직 후에도 최소한 30년을 활동해야 하는데, 그 시간을 건강하고 보람차고 알차게 보낼 수 있도록 행정동우회가 구심점이 되겠다는 각오다.

“물론 회원들 간 친목과 건강이 가장 기본이죠. 그리고 사회 봉사와 경제 생활, 평생 학습 등을 돕는 지원기관 역할을 맡을 계획입니다. 정년이 넘었더라도, 사실상 활동 내용은 젊은이들의 직업 활동과 다를 게 없습니다.”

임 회장은 이어 “그간 퇴직자들의 관심을 끌지 못해 참여율이 다소 저조했지만, 앞으로 동우회가 크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TV프로그램		15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6]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광장	00 생활의 발견 스페셜 10 걸어서 세계속으로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1부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생방송 오늘 아침	15 KBC 모닝와이드 35 모닝와이드 3부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15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2~3부	50 밥이 되어라(재)	35 아모르파티
[9]	3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45 KBS 뉴스		30 930 MBC 뉴스 45 기본 좋은 날	10 좋은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00 속아도 곱결(재) 40 지구촌 뉴스	45 오! 주인님(재)	10 SBS 뉴스 30 열린TV 시청자 세상 30 고향이 보인다
[11]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30 공감 스페셜 55 UHD 숨터	00 대박부동산(재)		
[12]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12	10 인간극장 스페셜	00 12 MBC 뉴스 20 반짝이는 프리채널 50 뽀뽀뽀 친구친구 스페셜	00 SBS 12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모범택시(재)
[1]	00 생로병사의 비밀(재) 50 한국의 인류유산(재) 55 불면해도 괜찮아(재)		20 꾸러기 식사교실(재) 50 2시 뉴스 외전	
[2]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2 30 명탐정 핑크퐁과 호기 45 반짝반짝 달남이			00 뉴스브리핑
[3]	00 짝 잡아 30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 스페셜	00 KBS 뉴스타임 10 린다의 신기한 여행(재) 30 TV 유치원	20 이 맛에 산다	
[4]	00 사사건건	00 누가 누가 잘하나	00 기본 좋은 날(재)	00 2021 한국민영방송대상 대상 수상작 낙동강 최초 생태보고서 33년의 귀환
[5]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도그래피	00 마카앤로니 15 몬스터 탐 30 농친 여행 따라잡기 50 통합뉴스룸 ET	00 5 MBC 뉴스 15 지도의 뒷면 -당신이 몰랐던 우리 동네 이야기	00 SBS 오뉴스 35 KBC 저녁뉴스 50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 2(재)
[6]	00 6시 내고향	30 2TV 생생정보	10 오매 전라도	50 닥터 365 55 전국 TOP 10 가요쇼(재)
[7]	00 뉴스7 광주전남 40 한국인의 밥상	50 미스 몬테크리스토	05 생방송 연금복권 720+ 10 밥이 되어라 50 MBC 뉴스데스크	50 SBS 8 뉴스
[8]	30 속아도 곱결	30 UHD 환경스페셜		30 KBC 8 뉴스
[9]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9	30 대박부동산	20 오! 주인님	00 맛남의 광장
[10]	00 다큐 인사이트 50 더 라이브	40 수미산장	30 광주MBC 다큐플러스 특집 다큐멘터리 세계지질공원 지오투어리즘	30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 2
[11]	3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라인	50 스튜디오 K	30 살맛나는 세상 스페셜 50 안싸우면 다행이야 스페셜	55 접속! 무비월드 스페셜
[12]	10 이슈 픽 쌤과 함께(재)	15 스포츠 하이라이트 40 통합뉴스룸 ET(재)		25 나이트라인 55 닥터 365

EBS1

05:00 왕초보 영어	10:50 최고의 요리비결
05:50 한국기행	11:20 세계테마기행(재)
06:10 세계테마기행	12:00 EBS 글로벌 뉴스
07:00 엠바와 함께하는 생활안전 이야기	12:10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07:15 티시데시	13:00 일단 해봐요 생방송 오후 1시
07:30 뽀뽀뽀 뽀로로	14:10 명의
07:45 최고다! 호기심딱지	15:05 지식채널e
08:00 땃땃땃 유치원	15:15 클래스e
08:30 우당탕탕 은하안전단	15:35 EBS 비즈니스 리뷰 플러스
08:45 워든지 뮤직박스	15:50 가만히, 10분
09:00 시공	16:00 페파 피그
09:15 봉구야 말해줘2	16:15 워든지 뮤직박스(재)
09:30 몰랑	16:30 땃땃땃 유치원(재)
09:40 우리집 유치원	16:50 오드북, 이상한 아이들
10:30 한국기행(재)	17:00 EBS 뉴스

17:20 위 베어 베어스: 곰 브러더스
17:45 시간을 달리는 세계사
18:00 생방송 방과 후 토크
19:05 볼트론: 전설의 수호자
19:35 자이언트 팽TV
19:50 바닷가 사람들
20:40 세계테마기행 1~2부
〈편편(FunFun)한 중남미
-미스터리 사막과 야마존,페루
21:30 한국기행
〈꽃보다 중년 4부 그렇게 능부가 되다〉
21:50 파란만장
22:45 다문화 고부 열전
23:35 클래스e
23:55 EBS 비즈니스 리뷰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4월 15일(음 3월 4일 癸巳)

☎ 010-9790-8237

子

36년생 너무 경직 되어 있다. 48년생 한 곳을 보지 말고 다각적으로 살펴보자. 60년생 이번 고비만 잘 넘기면 호전될 것이다. 72년생 이루어지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겠다. 84년생 내실을 기해야 후회하지 않게 된다. 96년생 변경하거나 추가하려 하지 말고 가만히 놓아두는 것이 최상책이다. 행운의 숫자 : 40, 82

丑

37년생 바야흐로 여러 가지가 복합적인 양상을 띤다. 49년생 본능적이려면 위험해지는 법이다. 61년생 긍정적인 시각이 밝은 미래를 기약할 것이다. 73년생 작용에 따른 파장이 위상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85년생 천 리 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한다는 원리를 명심하자. 97년생 과거적인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행운의 숫자 : 07, 97

寅

38년생 정연한 순서와 체계대로 처리하라. 50년생 사리에 밝은 사람의 말에 따르도록 하자. 62년생 궁금증이 명쾌하게 해소 될 수 있을 것이다. 74년생 제대로 살펴보고 이해해야 할 것이다. 86년생 무심코 방치한다면 더 악화되리라. 98년생 어떠한 말에도 현혹되지 말고 자신의 뜻대로 처리하는 것이 맞다. 행운의 숫자 : 99, 74

卯

39년생 선임견에 의한 추측은 판단을 흐리게 한다. 51년생 얻는 바가 많고 호평을 들을 수도 있다. 63년생 간접적인 것이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75년생 기존의 노선에서 벗어난 복잡해진다. 87년생 점진적으로 나아질 것이니 계속 밀어 붙여라. 99년생 안전에 대한 주의가 요청된다. 행운의 숫자 : 47, 59

辰

40년생 가까운 이와 함께 하면서 가둬야 잡히겠다. 52년생 돌발 상황이 나타날 수도 있다. 64년생 한 가지만 해결되면 연쇄적인 효과를 본다. 76년생 불합리하다면 반드시 보정되어야겠다. 88년생 성공의 기틀을 마련하게 될 것이다. 00년생 승산이 있는 게임이니 주저하지 말고 진행하는 것이 생산적이다. 행운의 숫자 : 17, 53

巳

41년생 가볍게 통과 되겠다. 53년생 생소한 것 같지만 자신이 기억을 못하고 있을 뿐이다. 65년생 전전긍긍하는 형태가 될 수도 있음을 알라. 77년생 복합적 요소로 인해서 우회하는 길이 오히려 빠르겠다. 89년생 집착을 버리고 진용을 정비하는 것이 이익이다. 01년생 부실한 판국이므로 잘 살펴보자. 행운의 숫자 : 08, 86

午

42년생 독자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이 무방하다. 54년생 새로운 것을 도모함이 더 효율적이다. 66년생 지대한 관심의 대상이 생기면서 바빠질 것이니라. 78년생 형식을 제대로 갖추어야 기능을 유지하리라. 90년생 집착을 떨쳐버리고 마음을 비웠을 때 더 효과적이다. 02년생 숨은 속 뜻을 제대로 파악해야 하느니라. 행운의 숫자 : 44, 70

未

43년생 궤를 같이 하지 않으려는 요소가 보인다. 55년생 외출을 삼간다면 면액 하겠다. 67년생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니 빨리 철회할수록 이익이니라. 79년생 무리한다면 머지않아 곤혹스러워지리라. 91년생 중심을 잡고 불 일이다. 03년생 기대 했던 바는 물 건너가고 기쁨을 주는 이가 따로 있다. 행운의 숫자 : 25, 81

申

32년생 알차고 보람 있겠다. 44년생 반드시 해결해야만 할 절실한 문제에 봉착한다. 56년생 상대를 파악하고 임한다면 절반은 이룬 셈이다. 68년생 같은 내용이라 하더라도 방법이 다른 차이가 크다. 80년생 이론과 실제 현상과는 차이가 있음을 알자. 92년생 체계에 따르는 것이야말로 성부의 관건임을 알라. 행운의 숫자 : 05, 63

酉

33년생 다양하게 구사해 보자. 45년생 다 되어가던 일이 반복해서 지연되는 입지이다. 57년생 석연치 않다면 고압히 선화하는 것이 유익하다. 69년생 인화야말로 만사를 성사시키는 근본임을 알아야 한다. 81년생 손꼽아 기다릴 일이 생길 것이다. 93년생 명점을 벗어나기 위한 특별한 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 행운의 숫자 : 23, 75

戌

34년생 가장 양성한 불길이 일고 있는 양상이다. 46년생 꾸준해야 실패작임을 인식해야 한다. 58년생 움직임이 약하지 만 지속은 있는 편이다. 70년생 바쁘게 쏘다녀야 할 일이 벌여 놓이게 된다. 82년생 잔술밭에서 바늘을 찾고 있는 형국이니라. 94년생 탈감지 않은 모양새가 되더라도 의연히 대응하는 것이 맞다. 행운의 숫자 : 21, 93

亥

35년생 보기 드문 길사가 기다리고 있도다. 47년생 지금 바로 잡지 않으면 난국에 봉착할 수 있다. 59년생 요령 있게 대처해야만 상황을 정리할 수 있다. 71년생 상대의 영향력 하에 놓이게 된다. 83년생 길한 여건이 조성 되어야 성과를 거두는 법이다. 95년생 대체로 해소 되지만 부분적인 결핍은 여전히겠다. 행운의 숫자 : 31, 66